대행사상, 인문사회·자연과학으로 논하다

한마음과학원, 10월 16일 제6회 학술대회 개최

글=신성민 기자, 사진=김주일 기자

'한마음 주인공 관법' 이라는 생활선수행으로 중생 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사상을 인문학과 자연과학으로 조명하기 위한 학술대회가 열렸다.

한마음과학원(원장 혜수)은 10월 16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대행사상과 한마음과학' 을 주제로 제6회 한마음과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3개 섹션으로 나눠 진행된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대행 선사의 가르침이 인문·사회·자연과학의 연구에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조명한 연구 논문들이 발표됐다.

정상만 한마음과학원 회원은 '켄 윌버와 대행 선사의 수행방법론 비교 연구' 를 통해 현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인 켄 윌버의 사상과 대행 선사 가르침의 면면을 비교·고찰했다.

정 회원에 따르면 켄 윌버는 여러 종교적 전통에서 추천되는 다양한 영적 수행 방법들을 직접 수행해 왔다. 여러 수행 전통 중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영적 스승은 인도의 힌두 성자 라마나 마하리쉬로, 켄 윌버는 그로부터 수용한 자기 탐구법을 수행법으로 삼았다.

반면, 대행 선사는 외부에서 얻은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직접적 수행체험을 통해 궁극의 깨달음을 이루고 주인공 관법을 제시했다. "깨달음에 도달한 방법은 다르지만, 그 궁극의 자리에 대한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서 개최돼

켄 윌버·대행선사 면면들 비교

선법가 일상 속 수행 가능 증명

기본소득, 五空 사상으로 해석도

설명은 서로 통하는 면이 많다"는 게 정 회원의 설명이다.

그는 " '이 뭣고' 화두와 유사한 마하리쉬의 자기 탐구법과는 달리 대행 선사는 아직 체험으로 알지 못하는 그 자리에 대해 강한 믿음을 강조한다. 이런 강조는 자력수행의 전통에서는 독특한 것"이라며 "이는 전적인 내맡김을 필요로 하는 주인공 관법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대행 선사는 이미 자신의 수행체험을 통해 그 수행법의 탁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상만 한마음과학원 회원이 10월 16일 열린 한마음과학 학술대회에서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선법가를 통한 불교 수행에 대한 연구' 를 발표한 박소진 신한대 교수는 한마음선원의 선법가가 일상 속 수행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증명해 눈길을 끌었다.

선법가는 대행 선사의 계송에 전문음악가들이 곡을 붙인 노래로, 박 교수는 문헌조사·심층인터뷰·온오프라인 참여관찰을 통해 선법가로 불교적 수행이 가능했음을 확인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한마음선원 선법학창단원과 일반 신도들은 선법가를 듣고 부르는 실천을 통해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마음의 교과서' 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지속적으로 선법가를 듣고 부른 신도들은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 선법가나 선법가 구절을 떠올리며 생활 속 수행의 실마리를 찾았다.

박 교수는 "현재 불교계에서 생활 신행과 관련된 현대 불교음악은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선법가가 한마음선원 신도들에게 '수행의 방편' 으로 독자적인 발전을 해오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향후 불교음악 속 선법가가 어떻게 자리매김할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한마음과학원 회원은 '지속가능한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 연구' 를 통해 지속가능한 기본소득을 위한 방안으로 대행 선사의 오공(五空) 사상을 바탕으로 한 '공생권 시장' 의 개념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박 회원은 기본소득제의 한계로 지속적인 재원 조달과 노동 공급 감소, 인플레이션 등을 제시하며 '공생권 시장' 과 '지분권 제도화' 개념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공생권 시장' 은 공생 서비스(노동) 수요자(기업, 정부 등)들은 임금을 공생권으로 지급하고, 공생 서비스 공급자(노동자, 학생, 주부 등)는 시장에서 공생권 지분을 매도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개인의 공생권 지분은 사망 시 자연 소멸해 상속이 없고, 보유 상한을 둬 부의 편중을 막도록 했다. 공생권 시장을 통하면 "기업 지분을 거래하는 주식시장처럼 공생권 지분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균형가격이 형성된다"는 게 박 회원의 설명이다.

박 회원은 "공생권 지분이 국민주주제처럼 적절히 사회 구성원에게 배분되고 노동시장과 연결돼 '지분건 거래소 시장' 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는 포괄적 경제 핵심 가치가 보이지 않는 '공생' 으로서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술대회에서는 △'대행 선사에 있어서 연구의 개념: 한마음 연구 방법론 정립을 위한 시론' (김영래, 한마음과학원) △'교사 교육 개선에 관한 담론 고찰' (안정현, 공주대) △'천체물리학 관점에서 연구한 대행 선사 과학 법문과 한마음 과학' (최상욱, 한마음과학원) 도 발표됐다.

학술대회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는 1999년 10월 10일 대행 선사가 심성과학연구원 법회에서 설한 법어를 음성으로 들었다.

한마음과학원 원장 혜수 스님은 격려사에서 "대행 선사께서는 '우리 지구는 지금 마음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함께 한마음으로 지구를 보존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고 하셨다"면서 "이렇게 한마음과학원, 대행선연구원에서 한마음을 바탕으로 하는 연구들이 학술대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사부대중의 한마음 정진이 지속된다면 대행 선사께서 당부하신 영원한 지구 보존의 바람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줌으로 진행했으며, 한마음과학원 유튜브 채널에서도 생중계됐다. 현장 청중은 사전 참가 접수 예약을 받아 인원을 제한했다.

"원효·혜초, 평택 거쳐 구법행…선양 필요"

평택사암聯, 10월 16일 학술대회

수도사 원효대사깨달음체험관서

'평택역사문화로드' 주제로 진행

1400년 전 원효대사의 깨달음을 향한 여정을 현재의 시각으로 조명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평택불교사암연합회가 10월 16일 수도사(주지 적문) 원효대사깨달음체험관에서 개최한 '제1회 평택 역사문화로드 학술대회(대회장 이평래)' 는 원효대사를 비롯해, 과거 평택지역을 거쳐 깨달음의 길에 나섰던 구법승들의 여정을 새롭게 조명하기 위한 첫발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원효대사가 당시 어떤 경로를 통해 당나라로 향했는지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신라 구법승 중 그 행로가 비교적 자세하게 전해지는 인물로, 그에 준하는 현재의 지역을 명확히 확인한다면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수많은 구법승들의 여정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평택사암연합회는 10월 16일 수도사 원효대사깨달음체험관서 '제1회 평택 역사문화로드 학술대회' 를 개최했다.

날 발제자들은 여러 기록을 근거로 원효대사와 의상대사, 혜초대사를 비롯한 구법승들이 당나라로 향했던 '당항진' 의 위치가 현재의 평택인 것으로 봤다.

'원효의 구법행로에 대한 연구' 를 주제로 발제한 김경집 인천시 문화재전문위원은 "신라 대당해로의 출발지인 당항진은 원효대사가 당나라로 구법의 길을 떠났던 경로의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며 "기록을 근거로 추론해 보면 지금의 평택시 포승읍 일대로 비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전문위원은 "삼국시대까지 당항진으로 불렸던 이후, 통일신라시대에는 당은포라는 명칭이 사용되는데 이는 명칭변경 혹은 새롭게 항구를 건립했기 때문"이라며 "두 경우 모두 당은포의 위치는 현재 평택시와 접해있는 바다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의 해로설을 주제로 발제한 김규현 티베트연구소장도 '당나라로 가는 포구' 당나루의 위치는 현재의 평택·당진항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 같은 주장에 더해 순례길 혹은 조형물을 통해 평택시의 문화역사적 가치를 확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김학범 한경대학교 명예교수는 '원효길의 역사문화적 상징과 의미' 주제발표에서 "원효대사 깨달음과 관련이 있는 평택시 포승읍에 위치한 수도사의 '평택원효대사깨달음체험관' 과 평택호예술공원을 연결하는 '원효길' 의 문화적 의미와 상징성을 주제로 '원효길' 재현의 가치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학술대회에 앞서 수도사 주지 적문 스님은 "오늘 학술대회를 기점으로 원효대사 조형물을 상징적으로 건립해 생명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 이는 평택시민들의 자긍심은 물론,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평택의 가치를 자연스레 알려 자부심을 갖게 하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택=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연등회 기원 '빈녀난타품' 영상으로 만난다

국립무형유산원, 10월 18일 영상콘텐츠 제작·공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연등회의 기원인 '빈녀난타품' 을 영상콘텐츠로 만날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이종희)은 10월 18일부터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에서 '휴(休), 무형유산' 을 통해 무형유산 영상 콘텐츠 5편을 새롭게 선보였다.

이날 공개된 영상 콘텐츠 중에는 연등회의 기원 설화인 '빈녀난타품' 이 담겼다. 〈현우경〉에 수록된 '빈녀난타품' 은 가난한 여인 난타가 먼 훗날 성불하리라는 수기가 담겼다.

난타는 부처님에게 공양하기 위해 하루 종일 구걸해 한 푼을 얻고, 이를 기름으로 바꿔 불을 밝혔다. 며칠이 지나고 다른 등불은 꺼졌지만, 난타의 등불은 꺼질 줄 몰랐다. 의아하게 생각한 비구들이 연유를 묻자 부처님은 "저 등불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대비심을 낸 사람이 공양한 것이어서 꺼질 수



없다"면서 난타에게 먼 훗날 등광이라는 이름을 가진 부처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내렸다. 이는 '가난하면서도 남을 위해 보시하고 자비심을 내는 숭고한 태도' 를 의미하는 '빈자일등(貧者一燈)' 의 사자성어의 유래이기도 하다.

'빈녀난타품' 영상 콘텐츠는 그림자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됐으며, 수어 해설 영상도 담아 청각 장애인도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게 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 속에서 무형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서비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일일시호일

복막염 반복에 수차례 생사기로…
가족걱정에 눈물

캄보디아 출신 찬디라씨 장천공으로 4차례 수술…위험 고비 넘겨
체중 40kg대로 줄어…기약 없는 치료에 병원비는 3000만원 훌쩍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